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제 399 호 2015년 7월 8일 발행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 031-481-2042 FAX : 031-481-3224 E-mail : bravo@iansan.net

브라보 안산
Ansan city Newspaper
Bravo Ansan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blog.naver.com/cityansan twitter.com/ansancityhall 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02면 특집 / 안산M밸리록페스티벌
안산M밸리 록페스티벌, 관객중심 페스티벌로 록 팬 찾는다

04면 생태·관광
조선시대 4대 서고, 만 권의 책이 있던 '청문당'을 가다

07면 문화·예술
'2015 단원미술제' 서예·문인화부문 수상작 선정

15면 알림마당
여성비전센터 2015년 하반기 수강생 모집안내

안산M밸리 록페스티벌, 관객중심 페스티벌로 록 팬 찾는다

"2년 만의 귀환, 불편사항 개선해"
이색 콜라보 '튜업 스테이지'…
국내외 아티스트 70여 팀 참여

2015 ANSAN M VALLEY ROCK FESTIVAL

오는 7월 24(금)부터 26일(일)까지 대부도 바다향기 테마파크에서 개최되는 '안산M밸리 록페스티벌(이하 밸리록페)'이 관객중심 페스티벌로 2년 만에 록 팬들을 찾는다.

지난 2013년 경기도 지산에서 안산 대부도로 부지 이전 후 개최한 첫 밸리록페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을 모두 개선했다.

우선 관객들의 도보 동선을 대폭 줄였다. 2013 밸리록페 당시 매표소와 캠핑장으로 운영됐던 1만 평 가량의 부지는 관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탈바꿈했다. 매표소는 페스티벌 부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새롭게 마련했고, 서울과 안산을 오가는 셔틀버스 승 · 하차장 또한 페스티벌 부지 인근에 신설됐다.

CJ E&M 음악사업부 페스티벌팀 관계자는 "입장로와 퇴장로를 분리시켜 혼잡함을 방지하고, 티켓 부스에서 공연장까지의 거리도 매우 가까워졌다. 2년 전에 비해 걷는 거리가 반으로 줄어든 동선으로 더운 여름 날씨에 관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다양한 숙박 패키지도 신설해 눈길을 끈다. 호텔 · 찜찔방 · 단체숙소 패키지는 모두 여성관객을 중심으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관객들에게 호평 받고 있다. 밸리록페의 주요 헤드라이너가 밤늦게 무대에 오르는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숙박을 선택할 수 있어 귀가 걱정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안산시는 CJ E&M과 함께 그간 여름 록 페스티벌의 '공공의 적'이었던 모기 척결에도 미리 나섰다. 성충을 비롯해 모기 유충까지 방역 범위를 넓혀 개체 수 증가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했으며 페스티벌 부지와 대부도 인근 상권까지 포함한 대규모 방역 작업을 단행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관객들이 '72시간'을 오롯이 밸리록페에 집중할 수 있도록 3개월 전부터 모기 차단 작전에 나섰다. 올 여름은 확실히 쾌적한 록페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천 시 '진흙탕'을 대비하기 위해 잔디 보호 매트를 설치했으며 관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도 시설 부근은 방수공사를 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했다.

2015밸리록페는 세계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의 내한을 성사시킨 국내 최고의 음악 페스티벌이다. 6월 25일, 밸리록페의 7차 라인업이 공개된 가운데 CJ 문화재단의 '튜업 스테이지'가 시선을 끌었다.

'튜업 스테이지'는 CJ 문화재단의 신인 뮤지션 지원 프로그램 '튜업' 출신의 아티스트 13팀이 선배 뮤지션 11팀과 함께 출연하는 특별 무대다. 이번 페스티벌 주최 측은 다양한 장르의 신인 뮤지션들이 국내 록 페스티벌에 소개될 수 있도록 올해 공연에 '튜업 스테이지'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가수 김완선과 하림을 비롯해 정원영 밴드와 김창기 그리고 힙합그룹 가리온 등의 선배 뮤지션들이 후배들과 이색적인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펼친다. 후배들로는 '슈퍼스타K' 출신 이정아, 고래야, 블루파프리카, 코어매거진 등이 출연한다. 이중 정원영 밴드와 튜업슈퍼밴드, 코어매거진과 김완선, 해리빅버튼과 가리온의 무대는 빅탑 스테이지의 대형 무대로 구성된다.

또 피터팬컴플렉스의 프론트맨 전지한은 '전지한의 댄스댄스댄스'라는 프로젝트로 무대에 선다. 그는 위아더나잇의 리더 정원중의 음악과 디자이너 박진우의 5미터 풍선 조명으로 분위기를 달구고 모두가 무대에서 춤을 추는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전기뱀장어와 조문근 밴드, 미미미(MeMeMe), 피해의식, 웨이스티드쟈니스, 로만티카, 원톤, DJ소다 등도 7차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푸 파이터스, 노엘 갤러거, 모터헤드 등 미국과 영국 록의 대표 주자를 비롯해 국내외 아티스트 70여 팀이 참여한다.

CJ E&M 관계자는 "하드락과 힙합, 국악과 3세계 등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아티스트와 장르 간의 파격적인 콜라보 무대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인디씬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만나볼 수 있는 라인업에 많은 음악 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자세한 소식은 공식 홈페이지(www.valleyrockfestival.com)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valleyrockfestival)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대부도의 특별한 볼거리

시화호조력발전소

시화호조력발전소는 2011년 완공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로, 현재 연간 5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하며 최고 9m의 조수간만의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조력발전의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T-Light공원(시화나래공원)은 발전소를 조성할 때 발생한 토사를 이용하여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해상공원으로 여가공간, 휴식공간, 편의공간 등 약 150,000㎡ 규모로 조성되었다. 휴게소는 식당과 카페 등이 있고 2층에는 전망대가 있어 시원한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2014년 6월에 개장한 조력문화관의 75m 높이의 달전망대는 시화호와 서해를 조망할 수 있는 안산의 랜드마크로 연간 15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푸른바다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시화호조력발전소. 대부도에 방문한다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다.

☞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927(대부동동 2098)
☎ 032-885-7530

구봉도 낙조전망대

대부해솔길 1코스의 대표적 관문인 개미허리 아치교를 지나 구봉도 끝자락에 위치한 낙조전망대. 이곳에는 대부도 낙조를 상징하는 '석양을 가슴에 담다'라는 조형물이 있다. 동그란 띠와 석양 모양의 구조물 사이로 보이는 석양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해가 질 무렵 때를 맞추어 방문하면 최고의 서해안 낙조를 즐길 수 있다. 대부도 최고의 포토존으로 손꼽히는 곳이니 바다와 석양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겨보자.

☞ 대부도관광안내소 :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31
☎ 1899-1720

탄도 바닷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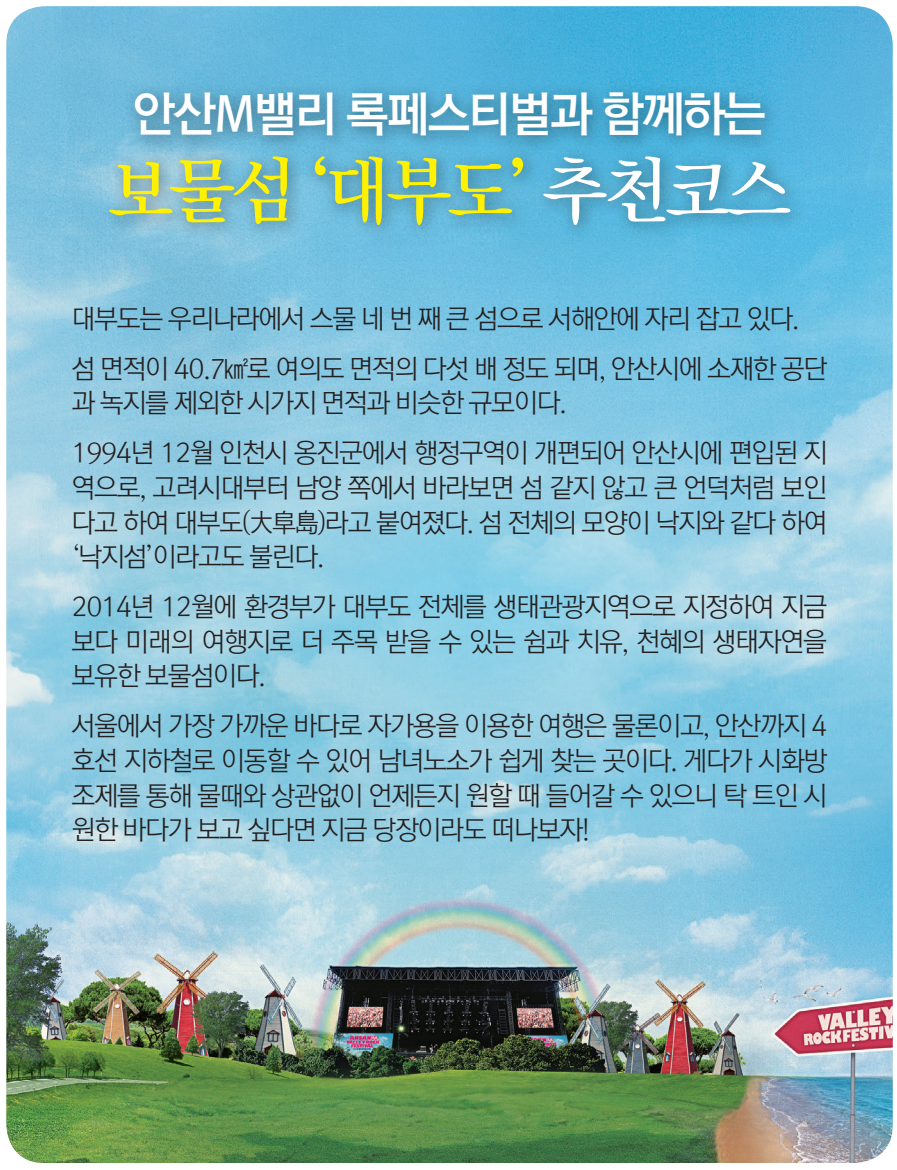
탄도는 대부도 본 섬과 선감도, 불도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섬이다. 누에섬 등대전망대가 유명하며 최대 높이 8m 내외로 밀물과 썰물이 하루 2차례씩 드나든다. 이때 바다가 갈라지며 길이 드러나는 신비한 현상과 서해안의 낙조로 장관을 연출하며 사진 작가와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대부해솔길 제6코스에 해당하는 탄도항에는 안산어촌민속박물관과 누에섬 등대전망대가 있으며, 가족단위로 낚시를 즐기는 여행자들도 많다. 해수욕을 즐기는 바다는 아니지만 잔잔한 바다를 가까이 느끼기엔 최적의 장소이다.

☞ 대부도관광안내소 :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31
☎ 1899-1720

대부도유리섬

대부도 끝자락에 자리잡은 유리섬은 한국의 무라노를 꿈꾸는 아름다운 공간.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 유리조각공원, 현대 유리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놓은 미술관, 유리작가들이 눈앞에서 직접 작품을 만드는 시연장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가득하다. 가족 여행객이라면 유리컵이나 액세서리를, 연인이라면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키홀더나 아로마 램프를 만들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 안산시 단원구 부흥로 254(대부남동)
☎ 032-885-6262



동춘서커스

누구나 한 번 쯤은 들어봤을 법한 우리나라 대표 서커스단인 동춘서커스. 1927년 전남 목포에서 첫 무대를 올린 이후 1세기 가까이 사랑받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영화, TV, 스포츠 등 다른 문화공연에 밀려 예전의 인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다양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동춘서커스가 대부도를 찾는 여행자, 특히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에게 새로운 문화공연을 선보인다. 평일에는 1일 2회, 공휴일은 1일 3회 공연으로 모두에게 재미있는 경험을 안겨주고 있다. 대부도를 더욱 특별한 여행지로 만들어 주는 동춘서커스를 찾아보자.

☞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49-31
☎ 02-452-3112

대부도의 신선한 먹을거리

방아머리음식문화거리

시화방조제를 건너 대부도로 들어가는 초입에 60여 개의 음식점이 모여 있는 거리다. 대부도는 섬이기 때문에 해산물 위주의 메뉴가 많으며 회, 조개구이 그리고 칼국수가 유명하다. 큰 간판들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늘어서 있어 음식점 선택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어느 곳에 들어가도 바다의 맛을 느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자.

탄도항수산물직판장

탄도 입구에 위치한 안산어촌민속박물관 건너편에 있는 수산물직판장이다. 서울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즉석에서 해산물을 구입해 2층 식당에 올라가서 기다리면 맛있는 요리가 나온다. 특히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해물 칼국수와 각종 해산물 구이가 유명하다. 해산물 칼국수는 특대 사이즈 그릇에 나와 여럿이 나누어 먹어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양이 많다. 물론 식사를 하지 않아도 싱싱한 해산물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다.

대부도의 아름다운 펜션

깔끔하게 정돈된 길과 TV 속에서 보던 전원주택 같은 펜션이 모여 있는 곳이다. 대부도가 아닌 동화 속 상상나라에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 펜션을 방문한 여행자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기에도 적합하며, 펜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개인 풀이 마련되어 있어 여름에 물놀이하기 좋다. 또한 가족들이 함께 즐기기 좋은 자전거도 마련되어 있으니 이용해 보자. 바다를 바로 옆에 두고 있는 산책길이 조성되어 석양을 보며 산책하는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다.

☞ 대부도펜션타운 www.ddtown.co.kr
☎ 1588-1934
☞ 대부도펜션파크 www.daeboodopark.com
☎ 032-886-2954
☞ 대부도펜션빌리지 www.daebudovil.com
☎ 1544-1574
☞ 대부도테마펜션시티 pensioncity.kr
☎ 1577-0616
☞ 구봉펜션단지 www.gubongpension.kr
☎ 070-7764-1838
☞ 대부도펜션구봉마을 gbvillage.co.kr
☞ 대부도펜션즐겨찾기 www.ansanpension.com

대부도 둘러보기 정보

대부도 전체를 돌아보려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대부도 여행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정보도 얻고 휴식도 취하고 싶다면 대부도관광안내소를 방문해 보자.

☞ 대부도관광안내소 :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31
☎ 1899-1720

조선시대 4대 서고, 만 권의 책이 있던 '청문당'을 가다

표암 강세황 그림의 배경이 된 안산의 고택

조선시대 4대 서고 중 하나로 조선후기 실학의 산실 역할을 했던, 안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가옥, 청문당(淸聞堂)을 찾았다.

청문당을 처음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은, 깊은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고택의 주변 환경 때문이다. 수인산업도로 가는 길에 위치한 청문당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파란 지붕의 작은 공장들과 고속도로다. 260년 전만 해도 5,000여 평 땅에 만권의 책을 보관한 만권루와 정원, 여러 개의 연못까지 갖추고 있었던 청문당의 모습은 현재 사랑채와 안채, 아래채, 사당으로 남아있다. 나무 대문을 열고 청문당 안에 들어가니, ㄷ자형 사랑채와 우물이 보인다. 그 뒤로 ㄱ자형 안채와 ㅡ자형 아래채가 안마당을 둘러싸고 있어, 청문당은 전체적으로 ㅁ자형 한옥구조다. 뒤뜰에는 250년 된 커다란 모과나무가 아름드리 서 있다. 사랑채 안에 들어가 창문으로 바라보면 이 모과나무가 한 폭의 그림처럼 나타난다.

청문당은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진주 유씨 가문의 종가집으로, 진주 유씨 16세손 유시회(1562~1635) 선생이 건립한 가옥이다. 유시회는 원래 충청북도 괴산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조카 유적이 선조의 아홉 번째 부마로 정해진 후 유적의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한양에서 괴산까지 300리길을 왕복할 것을 걱정하여 100리 안쪽에 묘터를 잡으라는 선조의 어명에 따라 이곳 부곡동 새터에 묘를 정하였다. 이때부터 부곡동 지역 일대를 사패지로 받은 진주 유씨 가문은 안산 바닷가의 어염권을 기반으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며, 조선 중기 기호남인(畿湖南人) 3대가의 하나로 손꼽히게 된다. 하지만 남인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조선 후기 이후에는 조선시대 4대 서고 중 하나였던 청문당 만권루가 기호남인들의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이자 실학의 산실 역할을 하게 된다. 당시 조선의 만권당은 전국에 4곳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 중 안산에만 청문당과 경성당, 두 개의 만권당이 있었다고 하니, 과거 이곳의 문화적 위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수많은 서적을 보유한 청문당은 당시 문인들과 선비들의 만남이 활발하게 이뤄진 장소였다. 특히 진주 유씨는 표암 강세황의 처가이기도 했는데, 당시 표암은 약 30여 년간 안산에 머물면서 처남 유경종 등과 함께 청문당에서 시회(詩會)를 열어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당시 강세황이 그린 '현정승집도'에는 복날 청문당에서 거문고를 타고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기던 문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이 시기에 단원 김홍도가 어린 시절 표암 강세황에게 그림을 배웠다는 기록도 있어, 청문당이 가지는 의미는 더 특별하다.

18세기 조선후기 문예부흥기의 중심에 있었던 청문당이 현재 공장과 고속도로의 소음 속에 외롭게 서 있는 풍경은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이상한 감흥을 남긴다. 청문당 마루에 앉아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었을 듯한 대들보와 기둥, 기와지붕을 한참 바라보며, 찬란했던 한 시절의 이야기들을 상상해 본다. '맑게 듣는다'는 뜻을 가진 청문당(淸聞堂) 이름에 어울리는 많은 토론들과 사귐의 시간들이 지금도 여전히 청문당 마루 나뭇결 속에 남아있을 것 같은데, 어느새 몇 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갔다. 청문당에 남아있는 옛 자취 앞에서 순간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시화호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시화호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필요해

시화호 일원에 생태계서비스 파트너십 TF 팀이 꾸려질 전망이다.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생태계 기능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끌어내는 편익을 말한다.

지난 6월 24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안산시 시화호 일원 생태계서비스 정책워크숍이 열렸다. 1,2부로 나눠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정책세미나와 정책대담으로 꾸며져, 생태계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화호 일원 관련 기관들의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

정책세미나에서는 먼저 이나무 ESP 한국 코디네이터의 발제로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재정전략을 개괄하고, 유럽연합의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로 전성우 고려대 교수는 자연자산 가치평가 기술개발 연구 결과로 생태계 기능 및 가치 평가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해양분야 시범지로서 시화호 대상 통계 · 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황은주 자연환경국민신탁 실장은 생물다양성 공동 이행 전략이자 생태계서비스 재정전략 수단으로 신탁 사업 개념과 사례를 소개하고, 시화호 일원 C자형 해안선 재정전략도 소개했다.

2부 정책대담에서는 시화호 일원 생태계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 후, 생태계 복원과 보전방안 그리고 생태계서비스 확보와 지불방안에 관한 접근방안을 참석자들과 함께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인 안산시 환경정책과 전문위원은 "바닷물과 담수가 만나는 기수해역인 시화호는 풍부한 생물다양성으로 생태계 서비스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지만 체계적인 조사가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다."며, "관계 행정기관간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이계숙 해양환경교육센터 대표는 "시화호 일원 환경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역사회 파트너십 복원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도 있지만, 여러 이해당사자가 힘을 합치면, 환경 보전 과정에서 생태계 서비스 사업이 응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시화호 일원의 해양 생태계 서비스의 복원 및 보전과 관련된 전문가의 진단도 들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구본주 선임연구원은 "생태계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고자 할 경우에 아직은 과학적 조사 기반이 취약하다."며, "생태계 서비스 가치평가 등에 관한 정부나 관계 행정기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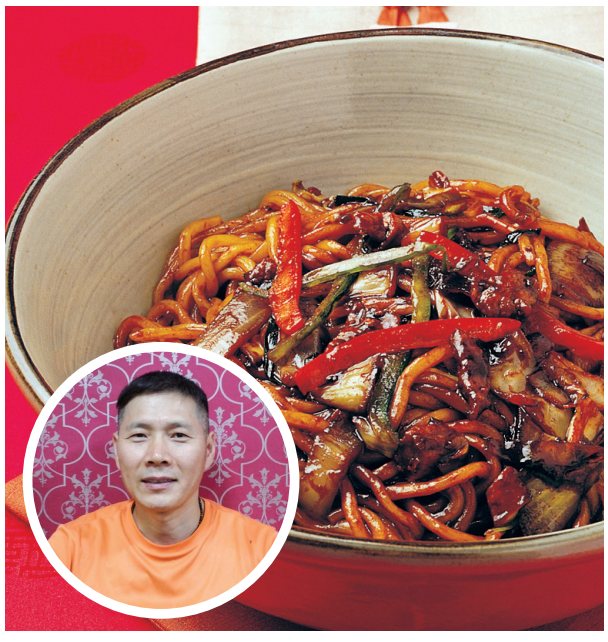
구희현 안산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시화호 생태계서비스 활동단(TF)을 만들어 실행안(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신지 해양수산부 사무관은 "현재 해양 전체의 보전과 이용을 디자인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중인데, 안산, 시흥시 등이 협력하여 시화호 일원의 생태계 서비스 평가자료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간관리 시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윤관 에버그린21 대표는 "시화호 일원에서 활동하는 NGO들의 약화된 역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파트너십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며, "시화호 생태계 서비스를 증진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해 관계단체들과 연대하며 구체적인 활동목표와 방법을 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안산은 지금 풍미작렬(風味炸裂)

"배운 것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요" 손짜장 자금성



화정천을 따라 이어진 도로변 화정7교 길 모퉁이에는 입소문을 따라 발길이 모이는 중국집 '손짜장 자금성'이 있다.

손주와 함께 이른 저녁을 드시던 방운성 어르신(65세, 와동)은 "집이 가까워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수타면이라 면이 쫄깃하고 식감이 좋습니다. 다른 중국집보다 면발이 탁월합니다.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메뉴의 품격을 높여주는 건 역시 면발이죠."라며 개업직후부터 6년째 단골이라고 한다.

김진태 대표(53세)는 열다섯 살 때부터 중국집 배달, 설거지, 주방보조를 하다 눈썰미와 손재주 덕택으로 스물한 살에 주방장으로 입성했다. 스물여덟 무렵인 88올림픽 때에는 잠실 롯데월드 중식당에서 일을 했다.

2010년 대전국제요리대회 보건복지부 장관상, 2014년 중국 산둥성 세계요리대회 금상 등 현재 (사)한국중식요리협회 부회장을 겸임하는 김 대표의 손맛은 명성이 자자하다. 식당 내부는 여느 중국집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김 대표가 30여 년간 걸어온 길을 알려주는 상패와 요리시연 모습이 담긴 사진은 고객의 신뢰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2014년 전국 테마음식 경연대회 때 동상을 받으며 시장님과 찍은 사진도 벽면을 차지하고 있다.

김 대표가 면을 뽑아내는 소리를 들으며 먹는 짜장면의 면발은 입에 착착 감긴다. 재료, 소스 등 그의 세월이 담긴 비법은 며느리에게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중식은 레시피로 계량할 수 없어요. 조리실장에게 비법소스를 전수해주고 있지만 손맛이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9년간 중국에서 요리 연수를 하고, 현재 직업전문학교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김 대표는 끊임없이 요리를 개발함과 동시에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다.

천안 병천고등학교에서 12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 그는 "실습실에서 40명이 만들어 낸 요리가 모두 다르다."며, "각양각색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오기도 합니다. 가르치러 갔다가 어린 아이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그럴 때 감동과 보람을 느낍니다.

개업 초기 7~8개월은 적자를 보기도 하던 '손짜장 자금성'은 나날이 매출이 늘면서 경기불황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수타 짜장면은 기계면과 달리 면이 쉽게 불어 배달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 대표는 근처 와동, 선부동, 화정동, 고잔1동까지는 서비스 차원에서 배달을 한다.

안양, 수원, 서울에서도 단골이 찾아드는 자금성의 대표메뉴는 역시 짜장면이다. 사천탕수육, 삼선원 두부요리, 해초냉짬뽕, 홍초짬뽕 등 이색메뉴도 눈에 띈다.

와동에서 자리를 잡은 김 대표는 월 1회 노인정 어르신들과 결식아동을 초대해 짜장면을 나누고 있다. 지구대원으로 방법활동에 참여하고, '오감봉사단' 이사로 국군장병과 복지관 등에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다.

'배운 것을 나누며 더불어 사는' 김 대표의 나눔의 철학이 오늘도 사람들의 발길을 길 모퉁이로 이끈다.

• 문의 : 손짜장 자금성 (☎031-487-5002)
• 주소 : 단원구 화정천동로 8길 6 (와동 789-3)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대부해양관광본부, '대부로컬푸드' 외식업체 신청 모집

대부해양관광본부는 대부도 지역의 향토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대부도 소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대부로컬푸드 외식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로 사용(60% 이상)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전자우편 및 팩스를 통해 서류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맛, 지역농산물 사용량, 위생, 서비스 수준의 4개 분야 총 20개 항목에 대하여 전문가가 평가하고 최종 선정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는 로컬푸드 외식업체 지정서 및 현판 교부와 함께 대부로컬푸드 외식업체 소개 책자 발간 배포, 안산시 홈페이지 및 지역지 홍보와 같은 온 · 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로컬푸드 외식업체 지정 사업을 통해 대부도의 우수한 향토음식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컬푸드 외식업체 지정 신청은 2015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대부해양관광본부 대부개발과(031-481-697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로컬푸드 - 단순히 농산물의 이동거리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중심의 수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풀뿌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자료제공 : 대부해양관광본부 대부개발과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기업체 모집

기업체 기술개발, 기술상용화, 해외마케팅까지 지원

안산시는 지난 6월 22일,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는 히든챔피언 육성'과 관련,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2015년도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안산시 소재 중소 · 중견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은 중소 · 중견기업 중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입 및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상용화 지원 및 전용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술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단기간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상용화연구에 집중 지원할 기술혁신형 사업, 이미 개발된 기술에 대한 사업, 해외수출을 위한 마케팅 같은 지원해야 할 사업 등 지원규모는 총 15개 과제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2년~4년, 기업별 1억 원 내외이며,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항가을로 143)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와 전화(한국생산기술연구원 ☎031-8040-6043)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는 지난 2월에 안산形 강소기업(히든챔피언) 발굴 · 육성을 통해 기업생태계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안산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양대, 경기테크노파크 등 지역 내 연구 및 기업지원 기관이 참여하는 정 · 산 · 학 · 연 지원시스템을 갖춰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한 맞춤, 밀착, 연계 지원이 선순환적으로 이뤄지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관내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에 매진할 것이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자료제공 : 산업정책과

‘제29회 안산시 여성상’ 수상예정자 손영일 씨

“서예를 매개로 인생을 이야기하며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이 큽니다”

안산시는 여성의 인권보호, 지위향상,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여성을 선발해 표창하고 있다.

안산시는 올해 ‘제29회 안산시 여성상’에 손영일 씨(55세)를 선정했다.

손영일 씨는 30여 년간 서예 외길인생을 걸어오면서 후학 양성에 정진해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계승 발전시키며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안산시 여성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손영일 씨는 1986년부터 반월동에서 서예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주민센터에서 주부와 학생들에게 서예를 가르쳤다. 2004년 제4회 대한민국한글서예대전 대상 수상, 2007년 한국미술협회 초대작가, 2009년에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서 「소설 구운몽 필사본의 미학적 고찰」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10년부터 여성비전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묵향이 배인 그녀의 작업실 겸 서예연구실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인 타령과 창이 흐르고, 벽에는 붓글씨가 쓰인 창호지가 벽지를 대신하고 있었다. 일본 작가인 동시에 서예가인 요시다 겐코의 수필집 「도연초」를 한글로 필사한 것이다. ‘무료하고 쓸쓸하여 쓴 수필’이라는 뜻이지만, 처세와 인생에 대한 교훈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기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자유롭게 써내려간 작품이라고 한다. 책장에는 「월인천강지곡」, 「명심보감」 등 서예 관련 서적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손영일 씨는 “한글서예를 전공했어요. 이곳은 함께 서예를 공부하는 연구실이자 정신적 교류를 나누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서예(書藝)는 기예(技藝)나 공예(工藝)가 아니라 학문이 함께해야 하는 예술”이라며 학생들에게는 한자급수시험을, 주부들에게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운다.

“서예는 정신이 함께하며 인격이 드러나는 예술입니다. 육체와 정신이 함께 풍요로울 때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어요.”

그녀는 서예를 매개로 만난 사람들에게 인생선배로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부드럽지만 거칠고 세밀함의 성질을 가진 붓을 쓰는 일은 음악과도 같아서 직접 사람의 정감과 연결이 된다고 한다. 서예 작품 창작은 글씨를 쓰면서 자신이 가진 감정을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 치유가 되기도 하며 인격을 원만히 하고 고상하게 수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작품을 완성하고 난 뒤에 오는 성취감, 공모전 입선 등의 경험을 한 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지며 삶에 대한 가치관을 스스로 정립한다. 그렇게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며 보람을 느낀다는 손영일 씨는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랑받고 사는 느낌 덕분에 행복합니다.”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안산시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안산시를 대표하는 여성으로서 손영일 씨 같은 훌륭한 여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내년에도 훌륭한 공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안산문화재단 8월 기획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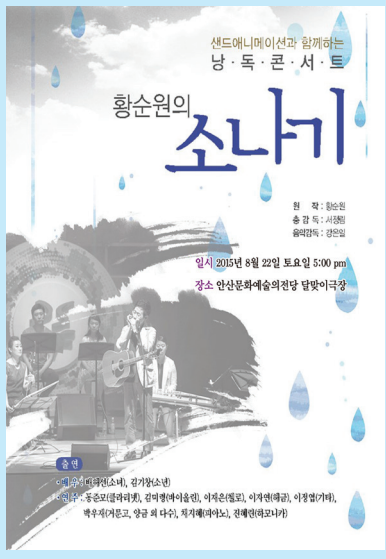
ASAC ‘아삭’은 AnSan Arts Center 이니셜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기획프로그램 브랜드입니다

〈 클래식 〉

청소년 음악회

I Got Melody

- 공연일정 : 2015년 8월 1일(토) 5시
- 공연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 출 연 : 지휘 – 성시연, 바이올린 – 정하나,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안녕?!오케스트라
-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가
- 관 람 료 : 전석 20,000원 학생할인가 12,000원 키움티켓가 6,000원
- 내 용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청소년음악회 3개년 기획시리즈의 두 번째로 ‘아이 갓 멜로디(I got Melody)’라는 주제로 민감한 감수성을 지닌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선율의 연주를 선사할 것이다. 안산 다문화가정 어린이들로 구성된 ‘안녕?!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 다원예술 〉

낭독콘서트

소 나 기

- 공연일정 : 2015년 8월 22일(토) 17시
- 공연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 출 연 : 배해선, 김기창 등
- 관람연령 : 6세 이상 관람가
- 관 람 료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학생할인가(전석)12,000원 키움티켓가 6,000원
- 공연내용 : 세대를 초월하여 누구나 알고 있는 황순원의 단편소설 ‘소나기’가 황순원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동·서양 악기의 음악과 음향효과, 샌드애니메이션과 함께 어우러져 융복합 공연으로 재탄생했다. 원작 소설 속의 이미지를 그리며 남녀노소가 70년 전의 정서를 공감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 클래식 〉

국내 유일의 청춘 색소폰 앙상블

- 공연일정 : 2015년 8월 27일(목) 오전 11시
- 공연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 출 연 : S.with(에스윗)
-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가
- 관 람 료 : 전석 18,000원
- 내 용 : S.with(에스윗)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출신의 클래식 색소폰연주자 4인이 열정과 패기로 뭉쳐 결성된 그룹으로, 클래식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색소폰 앙상블 음악을 소개하는 그룹이다. 이번 안산에서는 영화음악 OST등 대중적인 곡 위주로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 클래식 〉

미샤 마이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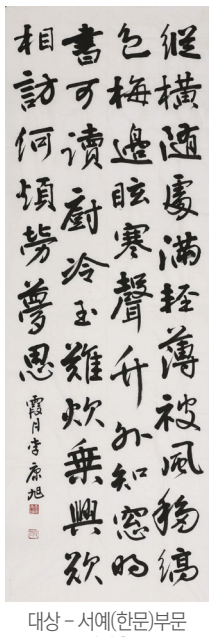
첼로 리사이틀

- 공연일정 : 2015년 8월 29일(토) 3시
- 공연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 출 연 : 미샤마이스키, 릴리마이스키
- 관람연령 : 10세 이상 관람가
- 관 람 료 : R석 110,000원 S석 80,000원 A석 50,000원 B석 30,000원
- 공연내용 : 이 시대 최고의 첼리스트이자 장한나의 스승인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리사이틀. 그의 딸이자 피아니스트인 릴리마이스키와의 협연으로 더욱 뜻깊고 남다른 호흡을 선사할 것이다.

'2015 단원미술제' 서예·문인화 부문 수상작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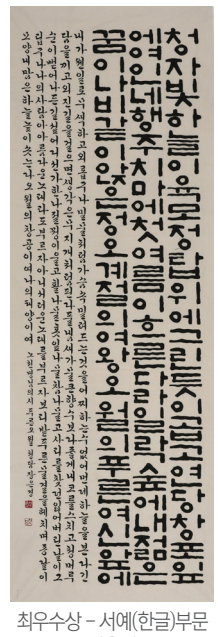
7월 14일~19일까지 단원미술관에서 수상작 전시해

대상, 서예(한문)부문 이강욱氏 '눈을 읊으면서 둔촌의 시에 차운하다'외 총 273점 수상작 선정



대상 – 서예(한문)부문 이강욱

최우수상 – 문인화 부문 황승자



최우수상 – 서예(한글)부문 장은경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단원미술제 서예 · 문인화 부문의 최종 수상작품이 선정되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단원미술제(운영위원장 구자승) 서예 · 문인화 부문에 총 563점(문인화 209점, 서예한글 180점, 서예한문 174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총 273점의 수상작품을 선정했다.

이번 단원미술제에서는 '눈을 읊으면서 둔촌의 시에 차운하다'의 서예(한문)를 쓴 이강욱 씨(60세)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황승자(문인화, 청빛 홍빛 그리움), 장은경(서예(한글), 푸른 오월)이, 우수상에는 박옥희, 김영진, 남궁규, 이경신, 정선희, 문성옥 씨가 각각 선정되었다.

대상 수상자인 이강욱 씨는 꾸준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서예가로서 "회갑 줄에 들어서 대상을 받은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천명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붓을 평생지기로 붓과 하나가 되어 바다를 나르는 신선처럼 훨훨 붓이 춤을 흥겹게 출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사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출품작의 성명과 낙관을 가리고 진행됐으며, 감수 또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엄중히 지켰다.

박한춘 심사위원장은 "올해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어 수상작 선정에 고심이 많았다."며 "대상작품에 선정된 이강욱 씨의 '눈을 읊으면서 둔촌의 시에 차운하다'는 긴 세월 연찬의 결정체를 보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평했다.

한편, 수상작 전시는 오는 7월 14일(화)부터 7월 19일(일)에 6일간 단원미술관에서 개최된다. 더불어 단원미술관은 8월 24일(월)부터 9월 1일(화)까지 미술부문 작품을 접수한다. 올해는 선정작가 공모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작가들과 미술계에서 큰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전시 기간 : 7월 14일(월)~7월 19일(일)
• 문의 : 단원미술관 (☎031-481-0503)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대상 수상작 원문 및 해설

詠雪次遁村詩韻

눈을 읊으면서 둔촌의 시에 차운하다

縱橫隨處滿輕薄被風移
종횡수처만경박피풍이
縞色梅邊眩寒聲竹外知
호색매변현한성죽외지
窓明書可讀廚冷玉難炊
창명서가독주냉옥난취
乘興欲相訪何煩勞夢思
승흥욕상방하번노몽사

가로세로 곳을 따라 가득 쌓이고
가벼워서 바람타고 옮겨지누나
매화 핀 옆에서는 흰 빛이 현혹되고
쓸쓸한 소리는 대 숲 너먼 줄 알레라
창 밝으니 글을 읽을 수 있고
부엌이 차니 밥 짓기 어렵네
벗 찾자면 흥을 타서 가볼일이지
꿈 생각만 괴롭혀서 무엇하리요

- 三峰先生 詩 -

프로축구★들의 잔치 'K리그 올스타전'

7월 17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개최

안산시는 지난 2일 서울시에 위치한 축구회관에서 한국프로축구연맹(부총재 허정무)과 축구관계자, 기자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K리그 올스타전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광용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협약식에서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은 지난해 큰 사고로 아픈 도시이다. 그러나 역동적이고 미래가 밝은 도시다. 오는 17일 안산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을 계기로 안산시의 정체성 확보와 시민들을 위로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프로연맹 허정무 부총재는 "이번 올스타전을 계기로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됐으면 좋겠다."며 안산시의 올스타전 개최를 적극 지지했다.

한편, 올해의 K리그 올스타전은 슈틸리케팀(울리 슈틸리케 한국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과 최강희팀(최강희 전북현대 감독)간 대결로 꾸려지며, 티켓구매는 오는 7월 3일부터 티켓링크와 안산시청 민원실(비지정석), 안산경찰청프로축구단(단체구매)에서 가능하다.

자료제공 : 체육진흥과

'마을 숲' 사람을 품다 9

휴식과 문화와 자연이 있는 '호수공원' 이야기

인근 주민은 물론 안산시민들의 활기로 넘쳐

저녁 7시쯤 되니 호수공원(상록구 사동 1509번지, 1513번지) 산책로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가족이나 이웃 등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며 앞서거니 뒷서거니 산책로를 누빈다.

20만 평의 드넓은 호수공원은 2000년부터 2004년 말까지 조성된 공원이다. 사계절 내내 안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호수공원은 휴식과 문화와 자연이 공존한다.

2005년도에 조성된 호수공원 중앙광장에서는 매년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고 공원 내에 운동 · 체력단련 시설, 편익 시설이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 외도 호수공원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다.

시 테마공원(2008년 12월~2009년 1월)은 시(詩)를 수록한 디자인 조형물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개설했다. 시 선정과 디자인은 한양대학교에서 수행한 호수공원 공공디자인 콘셉트를 실현하였으며, 수차에 걸쳐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도를 높여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라일락 동산은 에버그린시티 7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2007년 4월 식목행사 시 안산시 시민, 단체, 협회, 공무원 등의 수목헌수와 체험 나무심기로 조성되었다. 라일락이 개화하는 4월 말에서 5월 초, 라일락 향이 공원에 나온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다.

무궁화동산은 나라꽃 바로가꾸기 운동본부 무궁화연대와 안산시 공동으로 나라꽃 무궁화를 심고 가꾸며 매년 개화시기에 맞춰 무궁화축제를 개최하여 나라꽃의 소중함 및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호수공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호수와 분수이다. 호수는 3월부터 11월까지 담수하고 동파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물을 뺀다. 분수는 5월부터 10월까지, 일 6회(90분 가동, 30분 미가동) 가동한다.

호수 옆으로는 당초 습지를 활용하여 2005년도에 조성된 갈대습지(26,789㎡)가 있다. 습지 오염 방지를 위해 겨울철 1회 갈대깎기를 시행하며 갈대습지 관찰 데크가 있다.

호수공원은 대우푸르지오 6~9차, 서해, 풍림호수마을, 대림, 푸르지오 1차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산책 장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인근 뿐만 아니라 외곽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안산시 각종 행사와 체험장으로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사동에 사는 김미영 씨는 "매일 호수공원을 걷습니다. 공원이 조성된 초창기보다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그늘도 좋고 공원풍경이 점점 근사해지고 있어요. 공원을 크게 한 바퀴 돌면 한 시간쯤 걸리는데 하루 중에 저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걷는 동안 낮에 있었던 이런저런 감정들이 편안해져서 몸은 물론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또 "호수공원과 연결되어 있는 수변공원은 시화호 물줄기를 따라 길게 뻗어있어요. 걷는 동안 물고기들이 첨벙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 종류의 철새들을 볼 수 있어요. 여름에 바람이 불면 산책로 옆으로 푸른 갈대가 근사하게 흔들리고, 갈대에 흰눈이 쌓이는 겨울 풍경은 정말 멋집니다. 도시에 이런 공원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본오동에 사는 김수라 씨는 "저희 집은 멀지만 저희 집 근처에는 산책할 곳도 운동할 곳도 마땅치 않아서 주말마다 호수공원을 찾아요. 특히 호수공원은 넓어서 좋지만 가운데 호수가 있어서 더 좋아요. 공원을 찾는 사람이 많아도 넓어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아 나홀로 산책하기도 너무 좋아요."라고 말했다.

호수와 갈대습지, 무럭무럭 자라는 수목들과 여유 있는 삶을 즐기려는 많은 사람들로 활기가 넘치는 풍요로운 호수공원. 시 테마공원에서 시화호 쪽으로 발을 옮기면 수변공원의 낭만도 즐길 수 있다.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호수공원 산책로

시민들이 호수공원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다.

호수공원 산책로의 야경

자연미술치유가 이경윤 씨, '숲치유'를 말하다

학생들이 친구를 안아서 거미줄을 통과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일고등학교에서 '나를 만나는 숲'이라는 주제로 매주 1회씩 총 10회기의 숲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대관령자연학교 이경윤 대표는 숲해설가이자 자연미술치유 전문가로서 국제 NGO단체 '굿피플'의 요청으로 학생들에게 숲놀이와 자연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숲에서는 '이 안에 너 있다!'는 이름, 이안 선생님으로 통하는 이경윤 씨에게 '숲치유'에 대해 들었다.

Q 숲체험, 자연미술치유 등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

A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오래 해왔는데, 습득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원에 다니느라 노는 시간이 거의 없는 아이들보다 많이 뛰어 노는 아이들의 습득능력이 훨씬 높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독일 숲유치원의 사례들을 보며, 아이들을 숲에서 뛰어놀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숲해설 공부 후 숲유치원 강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숲유치원에서 아이들과 노는 방법을 연구하고, 나아가 밧줄놀이, 자연미술, 미술치료, 음악치료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어요.

미술치료를 숲치유 활동에 접목하니, 아이들은 자연물을 활용하는 활동을 흥미로워하고 저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숲은 아이들에게 놀이터이자 학습장이며, 마음을 열고 나누기에 좋은 최적의 장소입니다.

Q 경일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한 '나를 만나는 숲'은 어떤 프로그램인가?

A 종일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어야 하는 학생들이 숲에서 어린아이들처럼 뛰어놀다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숲에서 이루어지는 자연미술 활동은 아무런 도구 없이 숲 주변에 있는 자연물로 표현을 하는 창작활동으로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작품을 만들고 사진을 찍은 후에는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 환경을 해치거나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자연친화 예술활동입니다.

밧줄놀이, 흙케익 만들기, 액자 만들기, 자신 표현하기 등 자연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Q 자연미술치유가로서 보람 있었던 일은?

A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던 아이들이 회를 거듭할수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점점 표정이 좋아지는 것을 볼 때, SNS에 올려놓은 자연놀이 활동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그 놀이를 재현하며 찍은 사진들을 올려줄 때 큰 보람으로 와 닿습니다.

Q '자연미술치료'란?

A 자연미술 활동 중 숲속에 있는 자연물로 '나'를 표현하거나 '미래의 나의 모습'을 표현하는 활동은 미술치료를 숲치유에 접목한 치료기법으로 '자연미술치료'라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자연미술치료의 효과는 미술치료와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숲이라는 장소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 되고 싶은 나의 모습 등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밧줄놀이는 나무에 외줄을 걸어 그네를 타거나 20여명이 동그랗게 모여 밧줄을 잡고 한사람씩 태워주기도 하며, 거미줄을 만들어 밧줄을 통과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놀이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를 꼭 안아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라며 밧줄놀이를 통해 부쩍 가까워졌고, 눈을 가리고 친구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경험을 통해서 "친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Q 자연미술치유가로서 시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도시를 걷는 것과 숲 속을 걷는 것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사람이 숲에 있으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숲이 즐거운 놀이터로 느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숲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릴 때 놀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시면 재미있는 놀이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아이들과 숲에 가게 되면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보세요. '저 나무는 어떻게 저렇게 높이 자랐을까?', '아빠한테 가장 어울리는 나무를 골라줄래? 어떤 점이 어울리니?'라구요. 그리고, 숲길을 걷다가 돌멩이 여섯 개를 주워 아이와 함께 발과 발가락을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아이와 함께 자연미술 활동이 시작됩니다.

가족이 함께 숲에서 즐거움을 찾기 바랍니다. 숲은 즐거운 놀이터입니다.

• 문의 : 대관령자연학교 (cafe.daum.net/snow700)

신선영 명예기자〈woghkah@hanmail.net〉

자연미술활동 – 발꼬락만들기

자연미술활동 – 액자만들기

“인성도 배려도 도서관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수중, ‘하루 10분 독서’ 운동으로 화제

캐릭터 아침맞이 봉사단들

학생들이 그동안 모은 달란트를 간식거리와 교환하고 있다.

경수중학교가 ‘하루 10분 독서’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어 화제다.

경수중학교는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감골도서관이 추진하는 ‘하루 10분 독서’ 운동에 주목했다. 2013년 혁신학교로 지정돼 창의적 · 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시도해오던 경수중학교는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와 혁신학교의 핵심인 ‘창의성’ 교육이라는 학교의 지표와 일치하는 점을 감안, 전교생 965명이 아침독서에 참여한다.

아침 8시 10분부터 40분까지 30분간 각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아침독서’와 매주 화 · 수요일에는 학교도서관 개방시간을 저녁 7시까지 연장하는 ‘방과후독서’를 추진해 교과와 연계한 독서토론, 독후엽서, 추천엽서, 독후화 그리기 등 독후활동을 한다.

독서 활성화를 위해 4월에는 신입생이 도서관을 자주 찾아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아름다운 동행! 북-프렌드’라는 주제로 친구 5명 이상 함께 책 대출시 선물을 증정했으며, 5월에는 마음을 전하고픈 이에게 감사편지와 함께 선물할 도서명을 제출하면 책을 구입해 편지와 함께 마음을 전달하는 ‘책은 사랑을 싣고!’를 진행했다.

2학기에는 ‘책 속 보물찾기’와 ‘책 읽기 마라톤 대회’를 열어 독서 동기를 유발하고, 폭넓은 독서 경험과 지속적인 독서습관을 길러줄 예정이다.

도서관 입구에는 청구기호로 책 찾기, 영화원작 소설 찾기, 꽃 · 봄을 주제로 한 시 읽고 느낌 적기 등 일일미션이 주어진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비치된 등교일지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게시판에는 그날그날의 아이들의 독후활동 작품을 전시한다.

또, 월별로 테마가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교사와 학생이 모두 참여해 테마를 정하고, 교사는 모든 교육과정 속에 독서교육과 연계해 인성교육이 녹아나도록 수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아침 등교시간에는 캐릭터 인형이 된 아침맞이 봉사단들이 학생과 교사를 맞으며 인성 · 독서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홍보를 한다.

훈화를 재미있게 해 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강연수 교장선생님은 “인정받을 때 더 열심히 하는 법이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학교생활이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신뢰로 다가가겠다.”며 교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김연희 혁신부장은 “교장선생님의 신뢰의 리더십이 학교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인성도 배려도 도서관에 고스란히 담겼다’며 독서활동을 적극 지원해주는 교장선생님 덕분에 교사도 학생들도 모두 행복해합니다. 도서관 등교일지를 보면 3월초에는 아무도 도서관에 오지 않다가 독서행사 이후 10명, 4월에는 20명, 5월 40~50명, 6월은 벌써 칸이 모자라게 다녀갔네요.”라며 웃는다.

아침독서와 방과후독서, 미션 수행, 캐릭터 인형 봉사단 등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소정의 달란트를 지급해 주1회 달란트를 교환하는 행사를 연다.

이수빈 학생(2학년)은 “세 번 미션수행을 하면 1달란트를 받아요. 7달란트를 모으느라 꼬박 2주나 걸렸어요.”라며 초콜릿과 젤리를 교환해갔다.

6월 10일 달란트 교환의 날, 총 150여 시간에 해당되는 300달란트를 교환해가며 도서관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정이선 학생(2학년)은 “예전에는 책 한번 붙잡으면 3시간도 넘게 읽었는데, 중학생이 되어 독서할 시간이 없어 속상해요. 책 속 주인공이 되어 못해본 일들을 해보는 것이 정말 즐겁거든요.”라며 3학년 선배에게 알은체를 한다.

도서관에서 만난 선생님께 과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 선후배가 자연스레 소통하는 도서관은 시끌벅적하다. 그 속에서도 아이들은 책 속으로 빠져든다. 소란은 음악처럼 배경으로 흐르고, 책에 빠진 아이들이 마음의 가지를 뻗는 소리 들린다.

• 문의 : 경수중학교 (☎ 031-412-4101)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엄마들이 직접 참여한 산구비놀이터 디자인

아이들 일상의 안전을 고민한 출입구 디자인 중점

엄마들이 직접 참여한 산구비놀이터 디자인

동네 엄마들이 전문가와 함께 불편한 놀이터를 개선하는 디자인 작업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산구비놀이터’라는 예쁜 이름이 붙은 사1동 예스마트 옆 길가 놀이터는 예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장소였다. 도로 바로 옆에 붙은 출입구가 경사져 있어서,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이다. 또, 이 경사진 출입구에서 넘어져 다치는 아이들도 많았고, 조경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비가 많이 오면 놀이터에 있던 흙이 도로로 흘러나와 불편함을 겪었다.

이 놀이터를 자주 이용하는 동네 엄마들이 이런 불편함을 계속 제기하면서, 작년에 산구비놀이터 리모델링 안건이 주민참여예산제 우선 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7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리고 놀이터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이었던 만큼, 특별히 주민들이 직접 놀이터 디자인 과정부터 참여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의견이 반영돼, 올해 놀이터 디자인대학도 처음 열렸다. 이번 디자인대학은 주민들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놀이터를 이용하며 불편한 점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과정을 거쳤다. 디자인대학에 참여한 10여 명의 주민들의 의견은 물론, 산구비놀이터에서 디자인대학 보고회도 열어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도 직접 듣고, 메시지를 쓰는 현수막도 놀이터에 비치해 6월 말까지 자유롭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산구비놀이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디자인대학을 통해 놀이터 리모델링에 중점을 둔 부분은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출입로 개선작업이었다. 처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모래바닥에 대한 부분이었지만, 막상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시급한 것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출입구 문제였다. 그래서 바닥 탄성포장의 면적을 줄이고, 놀이터 출구를 이동하는데 비용을 재분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양쪽에 있던 위험한 출입구를 막아 작은 데크 무대와 영유아 전용 모래놀이터를 설치하고, 중앙에 나무를 활용한 안전한 출입구가 새로 설치된다. 비가 오면 흙이 넘어오던 울타리와 땅에는 흙넘이 방지 데크 벤치와 야자매트도 설치해 안전을 더 강화했다. 도로 쪽에 붙어있는 놀이터 경계는 밖으로 조경석을 높게 쌓아 구분할 계획이다.

이현선 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다른 동네의 디자인대학이 어린이놀이터 내부디자인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놀이터 주변의 상황을 이해하고 극복하려는데 중점을 뒀다.”며, “놀이터와 집을 오가는 아이들의 통행경로를 집중적으로 고민하며, 일상의 안전이라는 주제를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놀이터 디자인대학에 참여한 이주영씨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가진 한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최대한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 자체가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우리 지역의 동아리

아이들에게 단순히 책 읽어 주는 시대는 끝났다!

이호 초등학교 도서 봉사부 어머니 인형극 동아리 '가리극단'

만들어 다듬고 보듬어가며 펼쳐내는 이야기 세상을 연극에 담아

학교 도서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것을 시작으로 인연이 된 아이들과 책과의 만남. 어떻게 하면 좀 더 실감나고 재미있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어머니들은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이벤트로 인형극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6명의 어머니들은 외부 도움 없이 무대제작에서부터 의상, 극본 등 모든 준비를 해야 했기에 각자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은 집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받고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인형을 만들고 처음 하는 대본연습에 쑥쓰러워 얼굴이 빨개지면서 준비한 첫 무대 '장화홍련전'이 2014년 10월에 막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도서 봉사부 대표 전미화 씨는 "처음엔 내 아이가 있는 학교에서 단순히 봉사활동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생활을 해가며 또 다른 시간을 내어 봉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가 활동하는 것을 보며 더욱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생활을 하고 자랑스러운 엄마로 생각하더라구요. 그것이 제일 뿌듯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이호초등학교 학생들과 시립어린이집, 병설유치원등 20여 회의 공연을 마친 상태다.

또한 동아리 어머니들은 인형극과 함께 큰 책 만들기를 하고 있다. 동화책을 크게 만드는 이 작업은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직접 글과 그림을 넣어 만들기 때문에 큰 자부심을 갖게 된다. 수요일마다 그 책을 교실에 들고 가 10분씩 읽어주기도 하고 도서관에 비치해 두어 언제라도 누구나 쉽게 책을 읽을 수 있게 했다.

자발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뼈를 붙이고 살을 붙이면서 동아리를 키워가면서 오히려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어가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아이들에게 같은 속도로 발맞추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쯤 멈추어 서서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며 쉬어가는 시간을 갖는 지혜로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김선 명예기자 〈itsumo9011@naver.com〉

칭찬합니다

'나눔은 나를 풍요롭게 합니다'

27년간 재능을 나눈 **최성임** 씨

산사음악회에서 오카리나를 연주중인 최성임 씨

컴퓨터와 악기 관련 자격증이 25개. 88올림픽 때 보도본부에서 만삭의 몸으로 봉사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배움과 나눔을 쉼 없이 하는 최성임 씨를 만나보았다.

Q 봉사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88올림픽이 열렸을 때 보도를 전담한 본부에서 순수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그 때는 봉사라는 의미도 모르고 만삭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했었죠.

Q 악기를 6개를 다룬다고 하셨는데 악기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것 같네요.

A 아닙니다. 재능이 있는 건 아니고 100% 노력이에요. 하모니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독학으로 배웠고, 그 후 잊고 지내다가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피아노를 사줬는데 아이가 배우는 것을 보고 저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했죠. 그 때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Q 봉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요?

A 내가 열심히 배운 것을 배울 기회를 얻지 못했던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많은 것을 얻었죠. 예전에 무료 강의를 할 때였어요. 마지막 수업하는 날 초등학생 1명만이 수업을 들었죠. 마지막 수업에 발표회를 하곤 했었는데 1명의 수강생과 숲에서 발표회를 했어요. 발표회를 마치고 아이가 제 오카리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 것이 소리가 더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내주었죠. 아이가 훗날 숲속에서의 발표회와 오카리나를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무엇이 배움과 나눔을 지속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 '재미'가 있어야 해요. 재미있어야 오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연습을 통해 성장하는 자신을 보며 느끼는 성취감과 그것을 나누며 얻는 보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음악은 이기고 지는 스포츠와 달리 경쟁하지 않아요. 산속에서 연습을 할 때 악기소리를 듣고 새들이 날아와요. 소음속에서 내가 내는 악기소리를 들으며 교감할 때 충만함을 느끼죠.

Q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A 올해 대학 졸업반이라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로 시작한 악기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현재 소속된 레인보우 앙상블과 호수동 주민센터 '음악을 그리다' 동아리도 잘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자는 시간도 아까워 시간을 쪼개 연습을 하고, 부족하다 느끼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 공부를 시작해 마무리 단계에 다다른 최성임 씨. 최성임 씨와의 만남은 잠깐의 보여주기 식 나눔에 익숙한 현실에서 청량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월드 피플 다문화 속으로

콩고에서 온 미셸 씨의 안산살이

"우리, 한국에서 살게 해 주세요"

콩고 민주공화국(DRC)에서 온 미셸 씨(37세)를 글로벌다문화센터 1층 '월드맘' 사무실에서 만났다.

'월드맘은 영어권 결혼이민여성의 이중 언어 능력을 활용해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2009년에 시작된 사회적 기업이다.

월드맘 사무실에서 본 미셸은 환하게 웃으며 자신이 태어난 나라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미셸과 남편은 킨샤사 대학 재학 중 만나 결혼을 약속했고, 이후 중국에서 유학을 하던 A씨(남편)가 결혼식을 하기 위해 콩고(DRC)로 돌아왔다. 그러나 둘은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생이별을 했다. A씨가 중국 유학 당시 아르바이트로 다큐영화에 군복을 입고 엑스트라로 출연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당시 콩고는 우간다와 전쟁 중이었으며, 콩고 정부는 군인 신분이 아닌 A씨가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그를 스파이로 여겨 감옥에 가두었다.

남편 A씨는 우여곡절 끝에 탈옥해 중국으로 도피를 했고 중국에서 난민 신청을 했으나 허가가 나지 않자 2003년에 한국으로 왔다. 우리나라는 2002월드컵을 계기로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 비자가 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A씨는 비자를 받아 아내 미셸을 초청했다.

둘은 결혼 3년 만에 한국에서 새 삶을 꾸렸지만 입국허가 관련법이 바뀌면서 비자가 취소되고, 미셸과 남편은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미셸 부부는 국제난민단체 피난처(pnan), unhcr 등 NGO의 도움으로 난민신청을 했다. 그러나 5년 동안 이렇다 할 소식이 없었고, 미셸 부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렇게 12년을 살고 있다.

남편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미셸은 YWCA에서 영어전문지도사 자격을 취득했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어렵사리 생활고를 헤쳐나가고 있을 무렵 '월드맘'을 소개받게 된다.

월드맘 이미혜 매니저는 "미셸은 아이들을 정말 예뻐하고, 긍정적인 성격이라 뭐든 열심히 합니다. 자국어가 콩고어이며 벨기에의 지배를 받아 불어를 조금 할 줄 알고, 영어 실력은 평범한 한국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혼자 컴퓨터로 공부하고, 영화를 보면서 영어 실력을 쌓아 지금은 다른 강사들의 리더가 될 수 있을 만큼 역량이 뛰어납니다."라며 신분상의 문제로 리더 역할을 맡기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원곡초등학교에 다니는 큰아들 브라이언(11세)과 유치원생 작은아들 제이든(7세)은 엄마를 닮아 밝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한다.

"두 아들은 피부는 까맣지만 미역국, 된장찌개, 카레와 김치도 잘 먹는 한국 사람입니다. 아이들보다도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콩고는 한국보다 더 가부장적인 나라라 콩고에서 남자들은 집안일을 돕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집안일을 도맡아 잘하고, 다림질과 청소도 잘 합니다. 어서 난민신청이 허가되어 우리 가족이 떳떳하게 잘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나라에 연연하지 않고, '한국에서 열심히 잘 살고 싶다'는 미셸의 말이 이명처럼 자꾸만 귓바퀴를 맴돈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안산시자살예방센터 김윤희 센터장 인터뷰

부모들의 역할과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
사회적 차원에서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

안산시자살예방센터 김윤희 센터장

우리나라는 OECD(경제개발 협력기구) 34개 회원국 중에서 13년째 자살률 1위, 자살증가율은 세계 2위에 이른다. 2013년 기준 한 해 자살자는 1만4,427 명으로 2014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4,700여 명)의 약 3배에,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도 6조5천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비상인데 이에 비하면 자살문제는 최고 심각단계의 위험수위에 처해 있다고 할만하다. 메르스가 중동형 급성독감이라고 한다면 우리사회의 자살문제는 한국형 만성독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살의 원인 중 하나인 우울증을 우리는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살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만이 아닌 현실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는 안산시자살예방센터 김윤희 센터장의 말을 들어보자.

연령대별로 원인을 분석한다면?

자살의 이유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분모는 있다. 10대 청소년의 경우 주된 이유는 학업과 진학문제였으나 요즘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정파탄이 주요 이유로 증가하고 있다. 20대부터 50대까지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60대 이후에는 신체적 질환과 빈곤, 외로움 등이 주된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80세 이상은 20대보다도 4배 이상 높고 미국이나 호주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노인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특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자살이 10~30대 연령군의 사망원인 1위이고, 40~50대의 경우 2위라는 점은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열정적이어야 할 이 시기에 미래를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자살은 예방할 수 있는가? 있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마음을 이해하고 손을 잡아줘야 한다.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을 모두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이해하고 손을 잡아 준다면 분명히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자신이 혼자라는 느낌과 늘 타인에게 짐이 된다는 부담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살시도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모습을 보고, 말을 들어 주고, 적합한 말을 해 준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IMF를 겪고 2011년 법률 제정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 시작됐다. 현재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주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시켜 주고, 자살 고위험자들(유가족 포함)을 위한 상담과 관리는 물론 치료비 지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성별과 연령, 계층,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염병처럼 재현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자살에 대한 예산과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TV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한 잦은 보도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자살은 전염성이 있어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던 사람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언론은 보도 지침에 따라 자살에 대한 과도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오스트리아는 1980년대 지하철 이용 자살이 급증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정론지와 공영방송사를 중심으로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 결과 지하철역에서의 자살률을 절반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고, 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도 잘 지켜지고 있다.

이외에도 자살 고위험군에 속하는 자살 유가족들이 뒤이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도움이 필요하다. 가족 내에서 자살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6명의 자살사망자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어 유가족들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심리부검은 자살이라는 종착역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삶을 추적해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경찰조사처럼 하나의 자살사건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건의 자살사건에서 일정한 패턴(자살 전 징후, 자살 장소 및 방법 등)을 찾아 구체적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김윤희 센터장은 경희대 간호학과명예교수이며 20년간 정신보건사업을 담당해온 전문가로서 자살 고위험자들과의 상담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전했다.

자녀는 태어나서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청소년 말기까지는 건강한 부모로부터 적절한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야 올바른 성인으로 성숙할 수 있다. 부모의 원만한 결혼생활은 자녀들에게 무의식적인 학습이 되어 후에 그대로 대물림이 된다. 따라서 자살예방을 위해 근본적으로 부모들의 역할과 삶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녀는 사랑의 산물이요, 정성의 산물이요, 부모가 중년이 되면 희망의 산물이다. 그리고 조물주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야호! 이젠 집 가까이서 즐겨요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개장

안산의 어린이들과 시민들은 올 여름 무더위를 집 가까운 수영장에서 떨쳐낼 수 있을 것 같다. 호수공원 동쪽에 조성된 야외수영장이 오는 7월 11일 개장한다. 상록구 사동 1513번지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은 33,143.4㎡ 면적에 73억을 투입 성인 · 청소년 풀 1개와 유수풀과 유아용 풀로 구성됐다. 샤워장과 남 · 여탈의실 각 1동과 화장실 2동, 주차장과 관리소를 갖췄고 하루 동시 입장 가능인원은 3천 명이다. 2014년 3월에서 9월까지 진행됐던 야외수영장 건립은 지난 4~6월 시설 보완과 하자 보수를 끝냈다. 안전펜스와 주차장 높이 제한 시설, 파고라 등을 갖추고 7~8월 약 2달간 운영될 예정이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입장요금

구분	개인	감면			단체	비고
입장료	성인	장애인·수급자 국가유공자 (50%)	어린이 노인 (40%)	청소년 군인 (30%)	20인 이상 (50%)	만 3세 이하 무료
	7,000원	3,500원	4,200원	4,900원	3,500원	

집안청소와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일·가정 양립지원사업 실시

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일을 병행하는 여성들은 그야말로 슈퍼우먼이 되어야 한다. 일터에서 돌아와 서둘러 저녁을 준비해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하루 종일 떨어져 지낸 아이들의 투정을 받아주고 뒤치다꺼리를 하다보면 녹초가 되고 만다. 그런 일상이 계속되다보면 집안 구석구석에는 묵은 먼지가 쌓여가고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어야 할 가정이 또 다른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온상이 된다.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는 일 · 가정 양립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맞벌이 가정에 전문가를 파견해 집안대청소와 정리를 도와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일하는 한부모가정과 저소득 맞벌이 가정, 영세 자영업자에 한하며 신청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정관리사가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해 주는 시간은 4시간이고, 주방과 아이방, 냉장고와 옷장 중 1곳을 선택해 정리수납 전문가에게 정리 노하우를 듣는 서비스는 주말에 4시간동안 받을 수 있다.

1가정에 1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혜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가구평균소득 2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만 원, 가구평균소득 430만 원 이하는 2만 원이다.

청소는 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불필요한 물건으로 집안이 가득차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보자.

• 문의 :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 031-495-6844)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10대부터 70대가 함께 고민한 우리 마을의 미래

주민원탁회의 통해 마을의제 우선순위 정해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감골시민홀 체육관이 동네 주민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한껏 앞머리에 힘을 주고 온 초등학생부터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고생, 유모차를 끌고 온 주부, 중절모를 쓴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세대와 직업을 가진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일 일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체육관 안에 들어서니 한 테이블에 1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26개의 원형탁자에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주민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사1동에서 처음으로 300인 주민원탁회의가 열리던 날, 막상 그날 모인 주민들도 감골시민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지 놀라는 눈치였다. 또, 행사가 진행되면서 두 번째 놀라게 됐던 것은 전혀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 지레 짐작했던 세대의 사람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평소 부모님과 하루에 다섯 마디 이상 하지 않던 청소년들이 이날만큼은 의견을 내기위해 손을 들었고, 어르신들도 아이들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1동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을계획 우선순위를 직접 정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선정한 의제를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한다는 데 의미를 둔 물론, 마을 주민들이 처음으로 직접민주주의를 경험해 볼 수 있었다는 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달랐지만 마을의 31개 공감과제를 함께 검토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공동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함께 풀어가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관심과 욕구가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마을의 자랑거리를 함께 찾고, 10년 후 마을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면서 새삼 공동체의 가치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숲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 '사람냄새 물씬 나는 마을', '사람 · 자연 · 꿈을 키우는 마을' 등 10년 후 사1동 미래를 상상하는 창의적인 개념들이 각 조에서 크레파스로 그려낸 이미지들로 모자이크처럼 만들어졌다. 이날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안고 회의에 참여한 정화영 씨는 "아이가 행복한 마을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사1동 주민 260여 명이 참여해 각 분야별 5그룹으로 나눠, 조별 원탁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1동의 우선순위 의제는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었다. 생태 · 환경 분야에서는 쓰레기문제 해결이 34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이동성 분야에선 12표로 대중교통 노선 개선 문제가, 역사분야에선 뒷산 봉화대 스토리텔링과 마을역사기록단 구성에 관한 의제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특히 32표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던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은 물론 전 세대에 걸쳐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던 의제였다. 이 밖에도 마을교사를 양성해 교육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 공유경제를 이룰 수 있는 마을을 만들자는 의견 등이 개별 안건으로 모아졌다.

이날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던 이재웅 학생(하명고1)은 "많은 주민들과 같이 모여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할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고, 이런 원탁회의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두 딸과 함께 원탁토론에 참여한 서순화 주부는 "늦둥이 딸이 초등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서 마을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의 경험들을 많은 주민들과 나누고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마을카페와 함께 살아나는 마을

안산시, '우리 동네 학습카페 시범사업'선정돼

지역주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간 발굴 및 지역주민 공유를 위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진행하는 '우리 동네 학습카페 시범사업'에 안산시 내 3개소(사동, 대학동, 본오동)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곳은 마을숲카페(사1동 1295-7, 010-4748-5817), 동그라미(circle)카페(한양대학로 35, 010-5290-3237), 은빛둥지(본오로 2길 20, 010-7707-2246)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인들과의 모임, 동아리 모임, 재능기부 강좌, 체험강좌, 토론회, 좌담회, 아이디어 회의 등 다양한 학습활동이 가능하다. 간단한 음료와 식사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한양대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동그라미 카페를 운영하는 박춘자 씨는 "2008년부터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 모여서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마을을 살릴까?'라는 내용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다. 또한,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10년을 대학동에서 사는 대학생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수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학생들이 편안하게 와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빔도 설치했다. 지역주민들도 공동체 공간에서 허물없이 만나 자기 자신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런 공간은 주민들의 아지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단순히 차를 마시고 시간을 보내던 것에서 벗어나 어제와 다른 오늘을 모색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공간이 되길 바라본다.

학습카페마다 개방하는 시간과 요일이 다르므로 대표자 연락처로 문의 후 사용하면 된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30일 의장실에 모여 메르스 극복 응원 릴레이에 동참했다.

안산시의회 의원들, "메르스, 이길 수 있습니다!"

메르스 극복 응원 릴레이 참여… 메르스 조기 종식 염원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메르스 극복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 격리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성준모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30일 오전 제2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앞서 의장실에서 메르스 관련 지역 현황과 응원 문구를 협의하며 메르스 극복 응원 릴레이에 동참했다.

의원들은 "메르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병상에 계신 환자분들, 격리자, 의료진 여러분 힘내십시오. 안산시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한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의 빠른 수습을 기원했다.

이번 의원들의 메르스 극복 응원 릴레이는 안산시장의 추천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원들은 다음 릴레이 대상으로 김봉식 안산문화원장을 추천했다.

성준모 의장은 "치료를 위해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진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위해 불편을 무릅쓰고 있는 격리자들에게 작은 응원의 힘이나마 전하고 싶었다."며 "의료진들이 혼신을 다해 치료에 전념하고 있고, 시민들도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만큼 메르스도 곧 종식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한편, 메르스 극복 응원 릴레이는 루게릭병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자 진행됐던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한국 버전으로, 메르스 예방과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시민들을 응원하는 의미로 진행되고 있다.

자료제공 : 안산시의회

칭다오 조선족 백두산 양로원에서 미용재능 기부 펼쳐져

신안산대학교 뷰티 디자인과 중국에 미용봉사 다녀와

신안산대학교 뷰티디자인과 김민 교수를 비롯한 25명 학생들은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칭다오 조선족 백두산 양로원과 웨하이에 위치한 한족 양로원에 미용봉사를 하고 쌀,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돌아왔다.

학생들은 헤어컷, 네일아트, 손맛사지 등 미용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나눴다. 조선족 동포 어르신들은 고국에서 찾아온 학생들에게 머리손질과 손톱손질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잊지 않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곳을 찾아준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권현희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미용기술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봉사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런 봉사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안산대학교 뷰티디자인과 김민 교수는 "앞으로 미용봉사뿐만 아니라, 미용기술교육과 문화행사에도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뷰티한류를 위해 앞장설 계획"이라고 했다.

신안산대학교 뷰티디자인과 학생들은 지역 어르신을 위한 봉사는 물론 8년째 중국 미용봉사를 통해 중국과의 친선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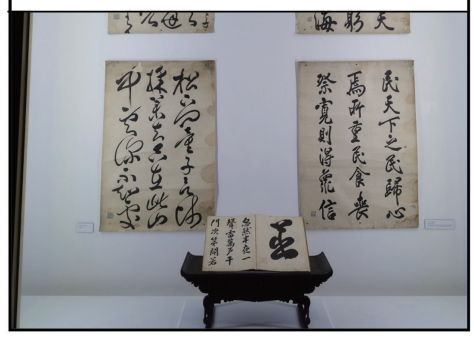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안산의 자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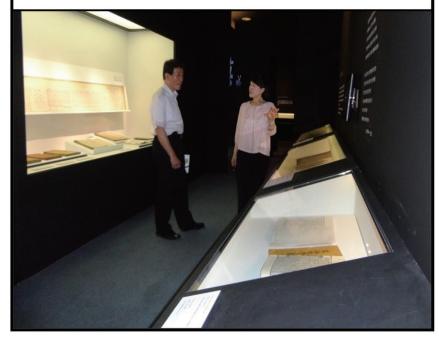
〈성호기념관〉

글·그림 이영호(kaljebi05@naver.com)

상설전시관에선 선생의 친필과 저서 등 선생의 학문과 사상에 관련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영상관에선 선생의 일대기를 영상으로 구성해 보여주며, 실학정보실에선 실학과 관련된 주요정보를 얻을 수 있지.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31 (이동) • **문의** : 031-481-2574

수강생 모집

◉ 모집인원 74개 과정 1,268명

◉ 접수일정

구분	모집과정		접수기간	접수방법	비고
우선모집	해당과목		7. 15(수) 09:00 ~ 7. 17(금) 18:00	방문 선착순 접수 (여성비전센터 본관)	우선모집안내 참고 ☞ 뒷면
일반모집	전문직업	조리, 패션	7. 20(월) 10:00 ~ 7. 24(금) 18:00	인터넷 선착순 접수	1인 1과목 신청
		기예, 지도사 바리스타	7. 21(화) 10:00 ~ 7. 25(토) 18:00		
	직업기초 사회문화		7. 21(화) 13:00 ~ 7. 25(토) 18:00		
추가모집	미달과목		7. 27(월) 10:00 ~ 7. 28(화) 18:00	인터넷 선착순 접수	1인 2과목 가능, 타시군 거주자 가능
대기자 접수			7. 29(수) 09:00 부터	전화접수	수강취소자 발생 시 대기자 순으로 등록

교육개요

◉ 교육기간 2015. 8. 10 ~ 12. 25(20주) ※ 법정공휴일은 휴강(수업일수 포함)

◉ 교육장소 본관(고잔동 여성비전센터), 별관(월피동 민방위교육장 내 여성정보하우스)

◉ 교육대상 만18세 이상 안산시민(남성 가능) ※ 피부관리자격, 패즈댄스, 댄스스포츠 등 남성 제한

◉ 수 강 료 총 50,000원(월 10,000원) ※ 재료비·교재비 별도

유의사항

- 1인 1과목 신청 (단, 추가접수 기간에는 2과목 이상 신청 가능)
- 일반모집에 정원의 50%미만 과목 폐강, 추가모집에 정원의 70%이상 과목 개강
- 수강 신청 후 교육과목 및 시간 변경 불가, 대리수강자는 수강취소 처리
- 접수시간 전에 홈페이지 접속하신 분은 새로고침 (키보드 F5) 누르고 수강신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m.iansan.net) 참조

안산시 평생학습원 여성비전센터 ☎ 481-2761~5

우선모집 안내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다자녀가정, 근로청소년, 무주택자
- 유의사항
  - 과정별 정원의 30%이내 모집으로 1인 1과목에 한하며, 방문 선착순
  - 수강료 면제대상자의 경우 우선모집기간 미신청자는 수강료 면제 혜택 제외
  - 재료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전문직업과정에 한하여 70% 이상 출석 시 예산범위 내 일부 지원)
- 구비서류 신분증, 대상별 해당 증빙서

대 상	발급기관 및 구비서류	비 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주민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수강료 면제(전과목) * 재료비 지원 (전문직업과정)
저소득한부모가족	동주민센터(한부모가족증명서)	
등록장애인	동주민센터(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다자녀가정	동주민센터(안산행복플러스카드)	* 수강료 면제(전과목)
근로청소년	근무지(재직증명서) * 1991.1.1 이후 출생자(만24세 이하)	* 수강료 면제 (야간 전문직업과정)
무주택자	동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지방세과제증명 건물분)	* 수강료 납부 (전문직업과정)

수강료 반환기준

※ 단, 개강 첫째주(8.10 ~ 8.14) 첫 수업 전일까지 취소신청 시 전액환불

구 분	기 간	반환금액
0개월차	접수일 ~ 2015. 08. 09	전액환불
1개월차	2015. 08. 10 ~ 2015. 09. 06	40,000원
2개월차	2015. 09. 07 ~ 2015. 10. 04	30,000원
3개월차	2015. 10. 05 ~ 2015. 11. 01	20,000원
4개월차	2015. 11. 02 ~ 2015. 11. 29	10,000원
5개월차	2015. 11. 30 이후	0원

안산시 평생학습원 여성비전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8 (고잔동)
T. 031-481-2761~5 F. 031-481-3636
http://wm.iansan.net

온라인 신청방법

반드시 사전에 회원가입 및 금융기관 발행 공인인증서 준비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
http://wm.iansan.net
▼
로그인
▼
화면상단 '수강신청안내 및 교육과정' 클릭
▼
수강신청
▼
수강료 결제(신용카드 또는 실시간계좌이체)
▼
수강확인

전문직업과정(조리, 패션) • 모집일 : 7.20(월) 10:00 ~ 7.24(금) 18:00

과 정		장소	요일	시간	인원	강의내용
조리 (7)	한식조리기능사	본관	월,화	09:30~12:30	24	한식조리기능사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과 실기
	손님초대요리	본관	금	13:30~16:30	24	특선 퓨전요리로 손님초대와 이벤트를 위한 일품요리
	웰빙요리	본관	목,금	09:30~12:30	24	자연의 재료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웰빙요리
	밑반찬	본관	화,목	13:30~16:30	24	맛깔스러운 밑반찬으로 풍요로운 식탁차리기
	한식조리기능사(야간)	본관	화,목	18:30~21:30	24	한식조리기능사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과 실기
	베이커리	본관	월,수	14:00~17:00	24	다양한 빵과 디저트를 만들어보는 홈베이킹 과정
	제과제빵기능사(야간)	본관	월,수	18:30~21:30	24	제과제빵기능사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과 실기
패션 (10)	헤어자격	본관	수,목	09:30~12:30	20	헤어미용사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과 실기
	헤어실무	본관	수,목	13:30~16:30	20	실용적인 헤어컷, 퍼머 등 현장실무(헤어자격 취득자)
	현대의상	본관	화,목	09:30~12:30	20	의상 기초과정(스커트, 바지, 셔츠, 반코트 만들기)
	현대의상(심화)	본관	화,목	13:30~16:30	1	의상 심화과정(다양한 재킷, 야상, 오버코트 만들기)
	홈패션	본관	금	09:30~13:30	20	재봉틀 사용법부터 쿠션 등 생활소품 디자인 제작하기
	한복	본관	월,수	09:30~12:30	20	한복 기초과정(버선, 남자한복, 여자한복 만들기)
	한복(심화)	본관	월,수	13:30~16:30	13	한복 심화과정(당의, 도포, 궁중복, 특수복 만들기)
	현대의상(야간)	본관	화,목	18:30~21:30	20	일상복(스커트, 바지, 원피스, 자켓 등) 만들기
	옷수선(야간)	본관	월,수	18:30~21:30	20	옷을 만들어보고 수선, 리폼하기(재봉틀사용 가능한 자)
	피부관리자격	본관	수,금	09:30~12:30	20	피부미용사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과 실기

전문직업과정(기예, 지도사, 바리스타) • 모집일 : 7.21(화) 10:00 ~ 7.25(토) 18:00

과 정		장소	요일	시간	인원	강의내용
기예 (11)	힐링마사지	본관	화,목	09:30~12:30	20	지친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마사지와 수기요법 지도
	마사지테라피&발마사지	본관	화,목	13:00~15:00	20	건강을 유지하는 마사지 테라피와 발마사지 지도
	한지공예	본관	수,금	09:30~12:30	20	한지로 조명등, 찻상, 서랍장 등 작은 소품 만들기
	한지공예(심화)	본관	수,금	13:30~16:30	6	한지로 창작품, 나만의 맞춤가구 등 큰작품 만들기
	패션페인팅자격	본관	화,목	09:30~12:30	20	직물원단에 핸드페인팅으로 나만의 옷이나 소품을 디자인
	화훼장식기능사	본관	화,목	09:30~12:30	20	화훼장식기능사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과 실기
	꽃집실무&실내원예	본관	목	13:30~16:30	20	꽃집실무인 꽃다발, 꽃바구니, 꽃꽂이와 실내원예 과정
	플로리스트(꽃꽂이)	본관	월	09:30~12:30	20	다양한 플라워디자인을 배우는 플로리스트 양성과정
	손쉬운실용도배A	본관	월,목	09:30~12:30	11	도배국가자격 취득과 손쉽게 내집을 인테리어하는 실습
	손쉬운실용도배B	본관	월,목	13:30~16:30	11	도배국가자격 취득과 손쉽게 내집을 인테리어하는 실습
	천연비누화장품	본관	월	09:30~12:30	20	자연의 재료로 아로마비누와 한방화장품을 디자인 제작
지도사 (4)	독서논술지도사	본관	수,금	09:30~12:30	20	독서지도를 위한 이론과 다양한 독후활동, 글쓰기 지도
	종이접기지도사	본관	수	09:30~12:30	20	창의력과 집중력을 키우는 종이접기의 기초부터 응용과정
	초등수학지도사	본관	화	09:30~12:30	25	초등수학교과 과정 이해와 지도방법을 배우는 지도사과정
	예다도지도사	별관	화,금	09:30~12:30	20	전통차 문화의 이해, 행다실습을 통한 다도 지도사과정
바리스타 (4)	바리스타자격A	본관	금	09:30~12:30	15	커피바리스타2급 과정(핸드드립,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등)
	바리스타자격B	본관	금	13:30~16:30	15	커피바리스타2급 과정(핸드드립,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등)
	바리스타자격C(야간)	본관	화	18:30~21:30	15	커피바리스타2급 과정(핸드드립,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등)
	바리스타자격D(야간)	본관	목	18:30~21:30	15	커피바리스타2급 과정(핸드드립,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등)

직업기초, 사회문화과정 • 모집일 : 7.21(화) 13:00 ~ 7.25(토) 18:00

과 정			장소	요일	시간	인원	강의내용
직업기초과정	정보 (5)	기초컴퓨터	본관	월,목	10:00~12:00	20	윈도우, 인터넷, 문서작성, 사진/동영상 편집 등 기초입문
		ITQ자격(엑셀&파워)	본관	월,목	13:00~15:00	20	ITQ 엑셀과 파워포인트 자격 과정(컴퓨터기초 이수자 대상)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본관	화,금	09:30~12:30	20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컴퓨터그래픽 국가자격 과정
		웹디자인기능사	본관	화,금	13:30~16:30	20	포토샵, 플래시, 드림위버 등 웹디자인 국가자격 과정
		실용컴퓨터	별관	월,수	10:00~12:00	20	PC와 스마트폰연계, 블로그작성, 한글, 엑셀, 파워 실무과정
	어학 (2)	실용영어(야간)	본관	월,수	19:00~21:00	20	주제별 실용영어표현을 배우는 과정(교재 Stretch(starter))
		실용중국어(야간)	본관	화,목	19:00~21:00	20	원어민강사의 실용 중국어회화 (교재: 맛있는 중국어4)
사회문화과정	어학 (10)	ABC영어	별관	화,목	10:00~12:00	20	알파벳 발음부터 기본 영어단어와 문장을 배우는 입문과정
		ABC영어(심화)	별관	화,목	13:00~15:00	3	다양한 영어단어, 기초문법, 문장을 익히고 배우는 과정
		영어회화 step 1	별관	월,수	10:00~12:00	20	팝송과 함께 배우는 기초영어회화 (교재 Interchange Intro)
		영어회화 step 2	별관	월,수	13:00~15:00	9	기초영어회화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교재 Interchange book 1)
		생활영어 Level 1	본관	월,수	10:00~12:00	20	상황별 생활영어로 speaking 실력다지기 (교재 Speak Now 1)
		생활영어 Level 2	본관	월,수	13:00~15:00	7	다양한 주제로 speaking 실력다지기 (교재 Exploring English 2)
		중국어기초	본관	화,목	10:00~12:00	20	중국어 발음부터 기초 어법, 문장 등을 배우는 초급과정
		생활중국어	본관	화,목	13:00~15:00	20	중국어 생활회화, 어법, 문장완성 등을 배우는 중급과정
		일본어기초	본관	화,목	10:00~12:00	20	일본어 발음부터 기초 어법, 문장 등을 배우는 초급과정
		생활일본어	본관	화,목	13:00~15:00	10	일어생활회화, 어법, 문장, 노래 등을 배우는 중급과정
	서화 (6)	한글서예	본관	월,화	10:00~12:00	20	한글궁체 정자의 운필법을 숙지하는 한글서예 기초 과정
		한글서예(심화)	본관	월,화	13:00~15:00	2	현대문과 고문의 흘림체 등을 숙지하여 서예공모전 준비과정
		한문서예	본관	월,수	10:00~12:00	20	한문의 기본 부수를 바탕으로 문필의 기초를 익히는 과정
		한문서예(심화)	본관	월,수	13:00~15:00	8	기본기를 토대로 각 서체(오체)를 병행지도하는 과정
		사군자	본관	화,목	10:00~12:00	20	난과 대나무를 그리며 필력, 담묵의 특성을 익히는 기초과정
		사군자(심화)	본관	화,목	13:00~15:00	11	국화와 매화를 그리며 사군자의 깊이를 이해하는 과정
	건강 (9)	단전호흡	본관	월,수	10:00~12:00	15	기체조와 단전호흡의 원리를 배우고 수련하는 기초과정
		단전호흡(심화)	본관	월,수	13:30~15:30	11	내몸의 기혈순환을 촉진하는 기체조, 단전호흡 수련 과정
		요 가	본관	화,목	10:00~12:00	15	기본 요가자세 수련으로 몸의 유연성과 균형감 향상
		건강요가	본관	화,목	13:30~15:30	15	유연성 강화, 바른자세 교정으로 건강한 심신을 유지
		째즈댄스	본관	월,수	10:00~12:00	15	째즈댄스의 기본동작을 익혀 신체의 유연성과 자신감 유지
		째즈댄스(심화)	본관	월,수	13:00~15:00	15	다양한 장르의 댄스동작을 연계하여 자기표현으로 승화
		댄스스포츠	별관	월,목	10:00~12:00	20	라틴댄스인 차차차, 룸바, 자이브를 즐기며 배우기
		댄스스포츠(심화)	별관	월,목	12:30~14:30	14	룸바, 차차차, 자이브, 삼바, 탱고, 왈츠를 즐기며 배우기
		힐링요가	별관	월,목	10:00~12:00	20	아사나, 요가호흡, 명상을 수련하여 몸의 균형을 찾는 요가
	예술 (6)	하모니카	별관	수,금	10:00~12:00	20	악보를 볼 줄 몰라도 숫자(1~7)로 쉽게 배우는 하모니카
		하모니카 공연반	별관	수,금	13:00~15:00	9	다양한 장르의 하모니카 연주를 배우고 재능기부 공연
		민요	별관	월,수	10:00~12:00	20	기본 민요가락을 배우며 흥겨운 우리소리 익히기
		민요(심화)	별관	월,수	13:00~15:00	19	국악가요, 경기/동부민요를 배우는 심화과정
		한국무용	별관	화,금	10:00~12:00	20	기본 춤사위를 내몸에 맞게 바르게 익히는 기초과정
		한국무용(심화)	별관	화,금	13:00~15:00	16	기본 춤사위를 연계하여 작품으로 표현하는 심화과정

함께 읽어요! 안산의 책

범 시민 독서운동 「한 도시 한 책 읽기」

제19회 안산시 독서감상문 및 독서감상화 공개모집

모집기간 2015. 6. 9 ~ 9. 23

모집부문

■ 독서감상문 – 일반부 | 중·고등학생부 | 초등학생부

부 문	독후감 제출요건
일 반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A4 4매 내외, 글씨크기 11)
중·고등학생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A4 2매 내외, 글씨크기 11)
초등학생	200자 원고지 8매 내외 (A4 1매 이상, 글씨크기 11)

■ 독서감상화 – 초등저학년부(1–3학년) | 유아부(6–7세)

부 문	독서감상화 제출요건
초등 저학년(1~3학년)	8절 켄트지 (도화지는 각 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서 배포)
유아(6~7세)	

대상도서 2015 「안산의 책」 및 후보도서 총15권 (※다수 작품 응모 가능)

구 분	일 반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및 유아
2015 안산의책	투명인간 (성석제 / 창비)	까칠한 재석이가 열받았다 (고정욱 / 애플북스)	수상한 아파트 (박현숙 / 북멘토)
후보도서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 (손철수 / 오픈하우스)	괴담: 두 번째 아이는 사라진다 (방미진 / 문학동네)	까불고 싶은 날 (정유경 / 창비)
	우포의 편지 (정봉채 / 몽트)	내 이름은 망고 (추정경 / 창비)	너는 어떤 씨앗이니? (최숙희 / 책읽는곰)
	철수 사용 설명서 (전석순 / 민음사)	불편해도 괜찮아 (김두식 / 창비)	봉주르, 뚜르 (한윤섭 / 문학동네)
	칼의 노래 (김훈 / 문학동네)	생각한다는 것 (고병권 / 너머학교)	화장실에 사는 두꺼비 (김리리 / 문학동네)

참가대상 안산시민, 관내 학교 재학생 및 직장 재직자

응모방법 개별접수 (※9월 23일 도착분에 한함)

- 방 문 : 안산시 도서관 각 자료실
- 우 편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14 안산시중앙도서관 3층 사무실
- E-mail : sunnynezip@korea.kr(독서감상문만 가능)

유의사항

- 작품(원고)표지에 이름, 학교명(근무처), 학년,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 도서관 배포용 도화지가 소진 될 경우, 같은 규격(8절 도화지)의 작품도 인정됩니다.
- 응모된 작품은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수상작이 모작이나 대작으로 판명될 경우, 추후라도 수상이 취소됩니다.

수상자 발표 2015. 10. 7(수), 14:00
중앙도서관 홈페이지(lib.iansan.net) 게시 및 개별통보

시 상 독서감상문·감상화 각 부문별 최우수1명, 우수1명, 장려1명 (총15명)

Ansan Joongang Library 안산중앙도서관 ☎ 031)481-3866

시민이 에너지다 – 절약이 발전소다

2015 우리마을 에너지상담신청

절약을 한다고 하는데 에너지 소비가 많다고요?
전기요금이 너무많이 나와 가계살림이 힘들다고요?
우리마을 에너지 상담사에게 에너지절약 상담을 받아보세요.

○ 이러한 가정은 에너지 상담 신청해주세요!

면적대비 에너지 다소비 가정 및 에너지절약을 희망하는 가정

우리집은 같은 평수에 비해 에너지를 적게 또는 많이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마을 에너지상담사는 무엇을 상담해 주나요?

- 신청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우리집 에너지 낭비요인을 체크하고,
- 상담가정에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 상담 및 지속적인 관리를 해드립니다.

※ 우리마을 에너지상담사가 직접 방문드립니다.

면적대비 월평균 에너지 사용량

면적 m^3(평수)	아파트 기준		
	전기 (Kwh/월)	도시가스 (m^3/월)	수도 (ton/월)
40~54(12~16)	239	80	18
55~71(17~21)	242	80	18
72~90(22~27)	271	87	21
92~107(28~32)	299	87	22
108~128(33~39)	310	87	23
131~149(40~45)	369	92	25
152~169(46~51)	383	95	25
182~201(55~61)	412	100	26
208이상(63이상)	415	-	27

출처 : 안산시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아파트 에너지사용량 분석(2015년)

○ 이렇게 신청해 주세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 신청기간 : 2015년 **5월 ~ 11월**
- 신청내용 : 상담 희망일 및 연락처와 함께 요청

※ 상담 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멀티탭도 함께 증정합니다.

○ 상담 시 협조사항 3가지!

1. 에너지 상담사와 약속하신 방문 날짜를 반드시 지켜주세요.
2. 에너지 상담사 방문 시 전기, 가스비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3. 지속적인 상담 및 절감효과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약속해주세요.